

한성~웅진기 백제유적에서 출토되는 고구려(계) 토기의 현황과 등장 배경

An Examination of the Current Status and
Emergence Background of Koguryo(style) Pottery
Excavated from Baekje Sites of the Hanseong-
Ungjin Period

이명헌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과정

I. 머리말

II. 한성~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현황

III. 한성~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특징

IV. 한성~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등장 배경 검토

V. 맺음말

국문 요약

고구려와 백제는 4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각축을 시작하였다. 양국은 오랜 기간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그 속에서도 다양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고, 본고에서는 그 사례 중 하나로 한성~웅진기 백제유적에서 확인되는 고구려(계) 토기에 주목하였다. 다만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계) 토기의 해석 및 편년 문제,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계 토기 구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관련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계 토기의 구분 시도하는 한편 그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그 등장 배경을 검토하여 한성~웅진기에 확인되는 고구려(계) 토기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한성기에 확인되는 고구려(계) 토기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 전라북도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확인되었고, 한성기 백제의 왕성인 풍납토성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고구려(계) 토기가 확인되었다. 대부분 주거지와 수혈에서 재지계 토기와 함께 출토되어 현지인이 실생활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재지계 토기에 중호문·파상문·점열문·암문 등과 같은 고구려 토기 문양 요소를 차용하여 제작하는 양상이 확인되었고, 한편으로는 고구려 토기 태토에서 확인되는 산화철 성분이 확인되는 등 제작기법과 형태가 고구려 토기와 동일한 토기들도 확인되고 있다.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는 모든 토기가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광개토왕의 남진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는 대체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엽 이후로 편년되는데 이 시기가 광개토왕의 남진기와 겹치며, 출토 지역도 광개토왕의 남진 경로와 일치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광개토왕의 한성 공격이 백제 내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쳤고, 그 여파로 한성기에 고구려(계) 토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웅진기에는 양국의 적대적인 관계가 심화되어 고구려(계) 토기의 수가 매우 적게 확인되며, 부여지역과 그 외 지역인 서천·고창 등에서 출토되었다. 부여에서 출토된 토기는 대체로 고구려계 토기로 추정되는 반면 그 외 지역, 특히 서천지역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제작기법과 형태가 고구려 토기와 동일하여 고구려 도공이 제작한 토기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는 부여 출토 고구려(계) 토기의 경우 당시 사비도성 개발을 위해 투입된 고구려 포로와 관련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반면 부여 이외의 지역에서 출토된 토기는 옹관으로 사용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는데, 동시기 한강 이남의 舊백제 지역에서 조성된 고구려 옹관의 사례를 볼 때 당시 인접했던 고구려 지역에서 유입된 토기를 옹관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제어 : 고구려, 백제, 고구려 토기, 고구려계 토기

I . 머리말

다들 잘 알다시피 고구려와 백제는 오랜 기간 각축을 벌여왔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주몽의 아들인 비류와 온조가 세력을 이끌고 남하하여 비류는 미추홀에, 온조는 위례성에 자리를 잡고 십제를 건국한다. 또한 고구려 미천왕이 4세기 초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313~314)하면서 국경을 맞대었고, 이후 369년 고국원왕이 백제의 치양을 공격하면서 양국의 각축이 시작된다. 양국의 각축은 점차 심화되어 371년에는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사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진다.

백제에게 커다란 치욕을 받은 고구려는 광개토왕 때 반격을 시작하는데, 「광개토왕릉비」에 따르면 광개토왕은 백제의 한성을 공격하여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낸다. 이후 장수왕 때 백제에 대한 공세가 절정에 이르는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장수왕은 475년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의 개로왕을 아단성 아래에서 살해한다. 이로 인해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된다. 장수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대전 지역까지 남하하며 백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다.

이렇듯 고구려와 백제의 적대 관계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적대 관계 속에서도 다양한 문화교류는 이루어졌고, 백제 한성기에 조성되는 적석총이나 사비기에 확인되는 고구려계 토기 등은 고구려-백제 문화교류의 대표적인 예다(이명현 2025b: 103). 특히 사비기에 확인되는 고구려계 토기의 경우 ‘고구려계 사비양식 백제 토기’라 불릴 만큼 다종다양한 토기들이 등장하고 있다(이명현 2021, 2022).

그러나 최근 백제 한성기와 웅진기에도 고구려 토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토기 자료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사비기와 마찬가지로 한성기와 웅진기에 이루어졌던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교류의 일면을 추론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보고서에 ‘고구려계 토기’로만 언급될 뿐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현재 남한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계) 토기 중 뚜렷한 해석이 되지 않는 토기들은 ‘고구려의 남진과 관련 있는 자료’로 여겨지며 5세기 중 후반이라는 대략적인 연대로 편년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백제 내에서 출토된 고구려(계) 토기의 성격 규명에 대한 연구는 미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계 토기 구분의 어려움은 관련 자료의 애매함을 부추겨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킨 하나의 요인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계 토기의 구분을 시도하는 한편, 한성~웅

진기 백제유적에서 출토되는 고구려(계) 토기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그 등장 배경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편적이지만 각 시기별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교류 양상 복원에 미약하나마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Ⅱ. 한성 ~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현황

1. 고구려계 토기에 대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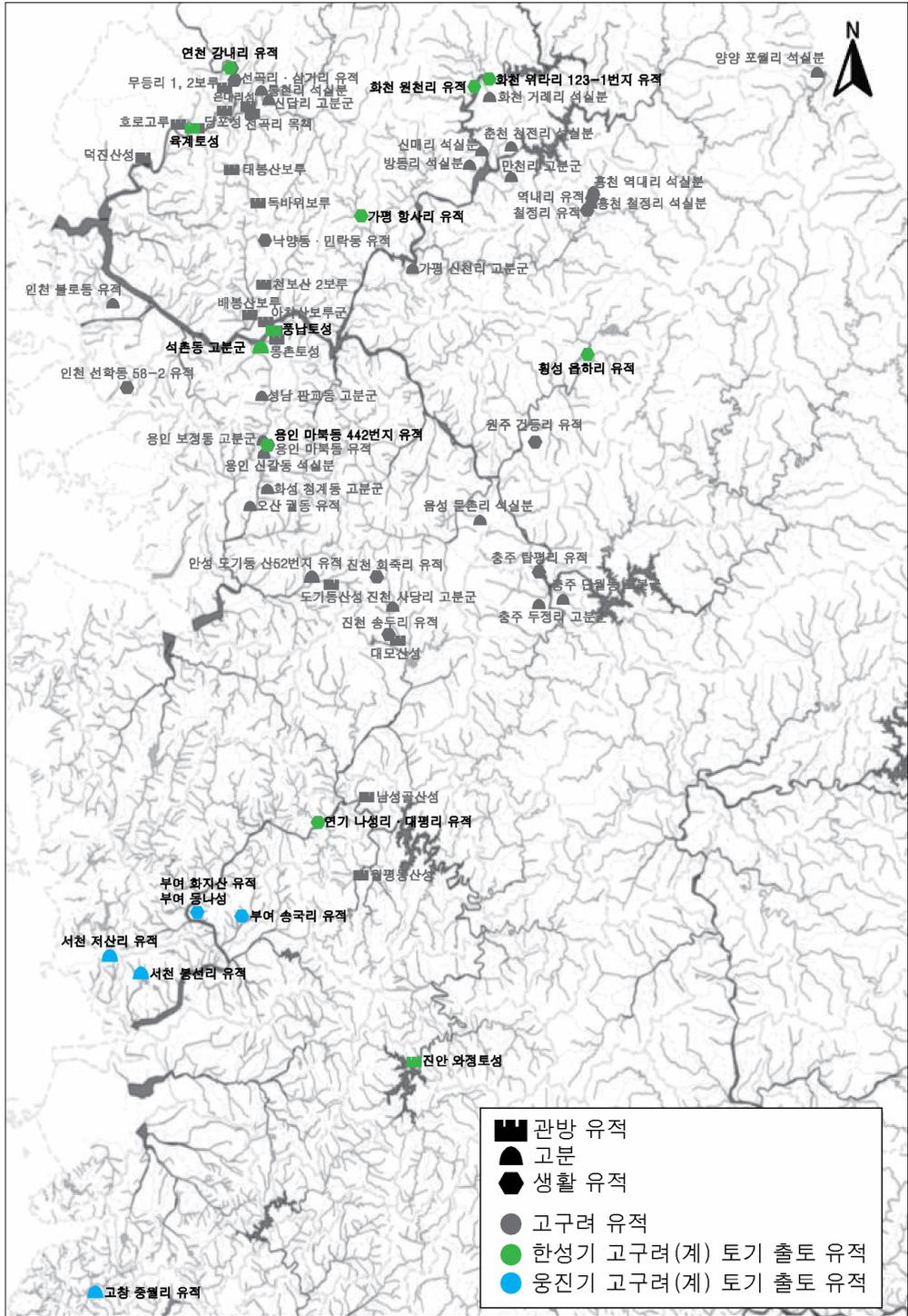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고구려계 토기’가 무엇인지, 고구려 토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고구려 토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고구려 토기는 ‘고구려의 영역 안에서 제작·사용된 토기’를 말한다(최종택 1998: 10). 해당 정의는 고구려 토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사용’에 대한 부분이다.

위의 정의를 엄격하게 따르면 ‘고구려 영역 안에서 고구려 도공이 제작한 토기’ 자체는 고구려 토기라 부를 수 없고, 여기에 ‘고구려 영역 안에서 사용까지 한 토기’라는 조건이 더해져야 고구려 토기라 부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고구려 영역 안에서 고구려 도공이 제작한 토기’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토기를 고구려 토기라 부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백제 주거지에서 백제 토기와 함께 사용되었고, 형태·제작기법·문양 등이 고구려 토기와 일치하는 토기는 어떠한 명칭을 부여해야 할까? 고구려 토기?, 고구려계 토기? 그렇다고 수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토기에 대해 ‘고구려계 토기’라 칭하기에는 후술할 고구려계 토기의 개념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외에도 형태·제작기법·문양 등이 고구려 토기와 일치하지만 출토 정황이 부정확한 경우에도 토기의 명칭이 애매해진다.

위의 정의를 ‘제작 and 사용’이 아니라 ‘제작 or 사용’으로 해석하더라도 혼란은 발생한다. 이 경우 고구려에서 수입하여 사용한 타국의 토기들이 모두 고구려 토기가 되고, 위에서 예로 들었던 백제에서 수입한 고구려 토기는 백제 토기가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필자는 기존 고구려 토기 정의에서 ‘사용’을 제거하고, ‘고구려 영역 안에서 고구려 사람이 제작한 토기’를 고구려 토기라 정의하고자 한다.



[도면 1] 백제 한성~웅진기 고구려(계) 토기 출토 유적 분포도(이명현 2025: 104, 그림 1 수정 후 인용)

타국에서 고구려 토기를 수입하여 사용했다라도 그 토기는 고구려 토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결론적으로 토기의 사용처와는 상관없이 제작지와 제작자가 모두 고구려라는 국가에 속해 있을 때 ‘고구려 토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개념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고구려계 토기’란 무엇일까? 양시은(2011)은 고구려계 토기에 대해 ‘고구려가 아닌 백제나 신라와 같은 다른 나라의 장인에 의해 모방 제작된 토기’로 판단하였다. 즉 고구려 소속이 아닌 도공이 고구려 토기의 형태나 문양 요소, 제작기법 등을 모방하여 제작한 토기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의 도공이 고구려 토기를 모방하여 제작하였다면 토기의 형태·제작기법·문양 등이 고구려 토기와 차이를 보일 것이며, 연구자들은 이를 고려하여 제작자가 고구려인인지 아닌지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구려 토기의 정의를 고려하여 두 가지 요소(제작자·제작지)가 모두 고구려 토기라 부르기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고구려계 토기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실제 자료를 보고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계 토기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백제유적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계 토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원형 혹은 기형 파악이 가능할 정도의 상태로 토기가 출토되어야 하며, 출토 정황 역시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출토된 토기에 대상파수·중호문·점열문·파상문·암문 등의 고구려적인 요소가 확인되어야 ‘고구려계’라는 논의가 가능하다. 고구려 토기의 대표적인 속성 중 하나인 평저·니질 태토 등의 경우에도 명확하게 고구려 토기와 유사한 양상을 가지고 있어야 고구려계로 논의가 가능하며, 편으로 출토되었다면 사실상 제작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계 토기를 구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한성~용진기 백제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고구려적 요소를 가진 토기에 대해서는 고구려 토기 혹은 고구려계 토기라는 단어가 혼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단어가 혼용되는 상황을 타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제작 주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형태·제작기법·출토 정황 등을 기준으로 잠정적으로나마 양자를 구분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토기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본 논문의 목적이 한성~용진기 백제유적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계 토기 모두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고구려(계) 토기’라는 이중적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서술하는 과정

에서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계 토기에 대한 구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의 현황

백제 한성기에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된 유적으로는 파주 육계토성, 연천 강내리, 가평 향사리, 용인 마북동 442번지, 풍납토성, 석촌동 고분군, 연기 나성리·대평리, 화천 원천리·위라리 123-1번지, 횡성 읍하리, 진안 와정토성 등이 있다.

[표 1] 백제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 출토 유적 현황

연번	유적명	출토 유구	유구 성격	수량	기종
1	파주 육계토성	96-7호 주거지, 한양-1호 주거지, 한양-2호 주거지	생활	10	사이옹, 양이부호, 구형호, 동이, 옹, 호 등
2	연천 강내리	36호·39호·56호·59호·70호 주거지, 55호 수혈유구, 8호 고구려 횡혈식 석실분	생활·분묘	10	구형호, 동이, 시루, 옹, 호, 단경호 등
3	가평 향사리	가-11호 주거지	생활	1	호
4	용인 마북동 442	55호 수혈	생활	1	대합
5	풍납토성	다-18호 구상유구, 라-그리드, 나-142호 수혈, 라-105호 수혈, 라-15호 주거지, 라-42-2호 수혈, 마-그리드, 나-2호 주거지, 다-그리드, 다-11호 수혈, 다-6호·18호 구상유구, 다-그리드, 마-1호 건물지	생활	21	동이, 옹, 호, 직구호, 대상파수부 뚜껑, 대상파수편 등
6	석촌동 고분군	5호분 남쪽, 좁석봉토분, 목관묘	분묘	3	단경호
7	연기 나성리	수혈유구(KK-030)	생활	1	구형호
8	연기 대평리	B지점-수혈주거지(KC-082), D지점-굴립주 건물지(KJ-002), 수혈유구(KK-204·339)	생활	4	직구호, 대상파수부편
9	화천 원천리	33호 주거지	생활	2	대상파수부 뚜껑
10	화천 위라리 123-1	삼국시대 1호, 5호, 13호 주거지	생활	6	양이부호, 동이, 대상파수부편
11	횡성 읍하리	삼국시대 4호 주거지	생활	1	단경호
12	진안 와정토성	5호 주거지	생활	1	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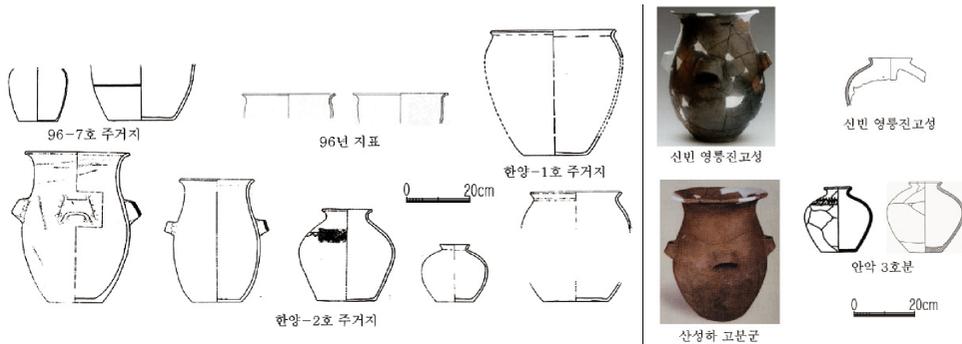
1) 파주 육계토성

파주 육계토성에서는 1996년 경기도박물관과 한양대학교박물관에서 이루어진 긴급발굴조사를 통해 주거지 및 지표에서 고구려 토기들이 출토되었다(경기도박물관

관·한양대학교박물관 1999).

해당 토기들은 모두 고구려 토기와 형태 및 제작기법이 동일하여 교류에 의해 유입된 고구려 토기로 판단되며, 주거지 내에서 재지계 토기들과 함께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현지인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계토성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 중 사이옹과 양이부호의 경우 4세기대 유적인 신빈 영릉진고성과 집안 산성하교분군 등에서 동일한 형태의 토기가 확인되었고, 구형호의 경우 무덤 내부의 묵서명을 통해 357년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안악 3호분 출토품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들 토기는 4세기 중·후엽으로 편년할 수 있다(이명현 2024: 164~165).



[도면 2] 파주 육계토성 출토 고구려 토기 및 비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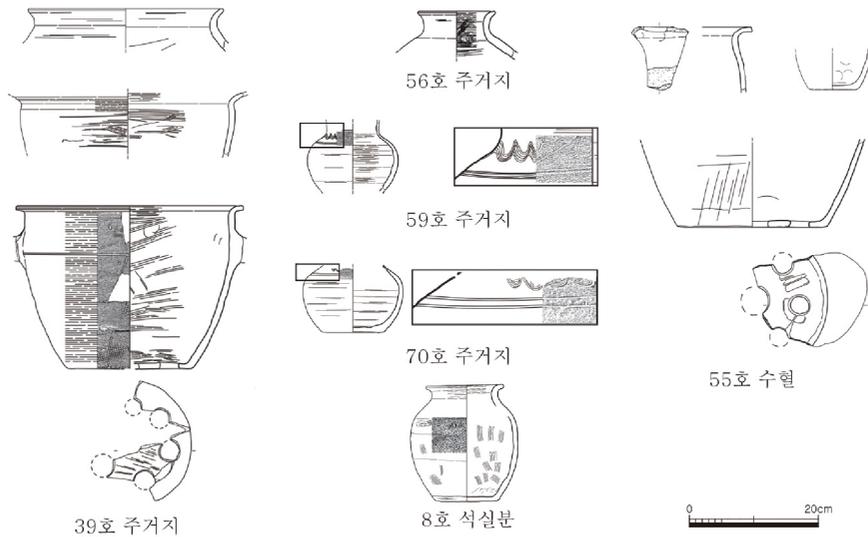
2) 연천 강내리 유적

연천 강내리 유적(고려문화재연구원 2012)에서는 36호·39호·56호·59호·70호 주거지, 55호 수혈유구, 8호 고구려 횡혈식 석실분에서 고구려계 토기가 확인되었다.

59호·70호 주거지 출토품의 경우 기형은 고구려 토기는 아니지만 고구려 문양요소를 차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39호 주거지 출토 시루의 경우 기면에 타날흔이 관찰되어 일반적인 고구려 토기와 제작기법에 차이가 있다.

위의 토기들은 대체로 고구려 토기와 유사한 문양이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토기에는 타날흔이 확인되어 현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¹⁾ 경질무문토기나

1) 보통 고구려 토기에서 확인되는 타날흔은 고구려가 남진 시 토기 제작에 흙백제 도공을 참여시킨 결과로 해석된다(양시은 2023: 23). 다만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된 강내리 유적을 비롯한 몇몇 백제 한성기 유적은 고구려 영토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논란이 있고, 출토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흙백제 도공을 토기 제작에 참여시킨 결과로 해



[도면 3] 연천 강내리 유적 출토 고구려계 토기(이명현 2025: 106, 그림 3)

타날문토기 등과 함께 출토되어 현지인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보고자는 주거지의 연대를 주거지의 중복 관계 및 평면 형태, 외반구연옹의 동최대경 위치, 단경호의 형태, 외래계 유물,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 등을 종합하여 총 4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1단계는 2세기 후반, 2단계는 2세기 후반에서 4세기 중반, 3단계는 4세기 중후반, 4단계는 4세기 후반 이후로 편년되며,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된 주거지는 각각 2단계(56호·59호·70호), 4단계(39호 주거지)에 해당된다.

강내리 유적 주거지에 대한 편년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상이하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주목 되는 것은 강내리 유적 옆에 조성된 고구려 횡혈식 석실분이다. 주거지 내에서 고구려계 토기도 확인되는 만큼 석실분들은 분명 취락유적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는데 그 연대가 상이하어 문제가 있다.²⁾ 다만 역사적 맥락상 강내리 유적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적 요소들은 최소 고구려가 낙랑과 대방을 멸망(313~31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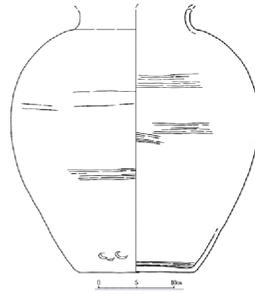
석하기에도 어색함이 있다. 따라서 해당 토기들이 고구려의 남진에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현지 도공이 고구려 토기 요소를 차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 8호 석실분에서 출토된 구형호의 경우 타날흔과 A형 구연을 기준으로 5세기 중후엽으로 편년되고 있다(양시은 2014: 72). 부연 설명을 하자면 고구려 토기는 구연부 형태를 통해 대략적인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A형은 구연부가 거의 직선으로 외반하며 구단부를 등글게 처리한 것, B형은 직선으로 외반한 구연부의 말단이 각지게 처리된 것(이 경우 구단부 바깥쪽으로 침선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C형은 B형과 유사하지만 구단부 하단이 들리고 홈이 파진 것, D형은 구연부를 밖으로 말아서 접는 것이다(최종택 2020: 11). 이중 D형 구연이 6세기대 제작기법으로 판단되어 A·B형 구연보다는 늦은 시기의 형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킨 4세기 초 이후에 등장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김준규 2013: 72)이므로 본고에서는 주거지에서 출토된 고구려계 토기의 시기를 백제 한성기로 판단하고자 한다.

3) 가평 향사리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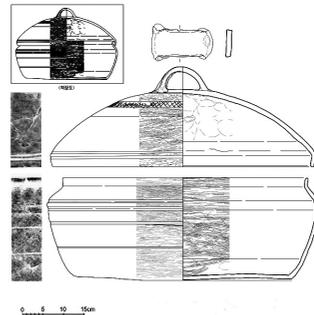
가평 향사리 유적에서는 가지점 11호 주거지에서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와 함께 고구려계로 추정되는 니질 태토의 평저호 1점이 출토되었다(고려문화재연구원 2010). 이 토기는 완전한 평저를 이루는 고구려 토기와는 평저화 정도에 차이가 있어 백제 공인이 제작한 고구려계 토기로 판단된다(양시은 2011: 118).



[도면 4] 가평 향사리 유적 출토 고구려계 토기

4) 용인 마북동 442번지 유적

용인 마북동 442번지 유적에서는 55호 수혈에서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되었다(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 이 토기의 기종은 대합으로, 기종 자체는 고구려계라 보기 어렵지만 대상과수가 부착된 뚜껑도 함께 출토되어 고구려 토기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토기로 추정된다.³⁾ 또한 경질의 옹과 공반되었는데 해당 옹은 몽촌토성에서 많이 확인되는 기형으로 대략 5세기대로 판단된다(양시은 2011: 119). 다만 바닥에 타날흔이 확인되어 고구려 토기와는 제작기법에서 차이가 있다.



[도면 5] 용인 마북동 442번지 유적 출토 고구려계 토기

5) 풍납토성·석촌동 고분군

백제 한성기의 도성인 풍납토성과 백제 왕실의 묘역인 석촌동 고분군에서도 고구려(계) 토기가 확인되었다. 풍납토성(국립문화재연구소 2012a, 2012b, 2013)의 경우 건물지 및 수혈 등에서 호·동이·대상과수편과 같은 고구려(계) 토기가 확인된다.

3) 대상과수가 부착된 뚜껑 이외에도 해당 대합의 바닥이 일반적인 백제 토기와는 달리 완전한 평저를 이루고 있어 고구려계 토기로 판단하기도 한다(양시은 2011: 119).

자세히 살펴보면 다-18호 구상유구와 라-그리드·나-142호 수혈에서는 형태나 제작기법에서 고구려 토기와 차이가 없는 동이·호가 출토되었고,⁴⁾ 라-105호 수혈 출토 용은 동체에 1줄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그 위아래로 한 쌍의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라-1호 구상유구 출토 단경호 구연부편과 라-2호 수혈 출토 동체부편에는 점열문+횡침선+중호문으로 조합된 전형적인 고구려 토기 문양이 시문되었다. 다만 토기의 형태나 태토의 정선도가 높지 않은 점, 문양의 시문기법 수준이 영성한 점 등은 고구려 토기와 차이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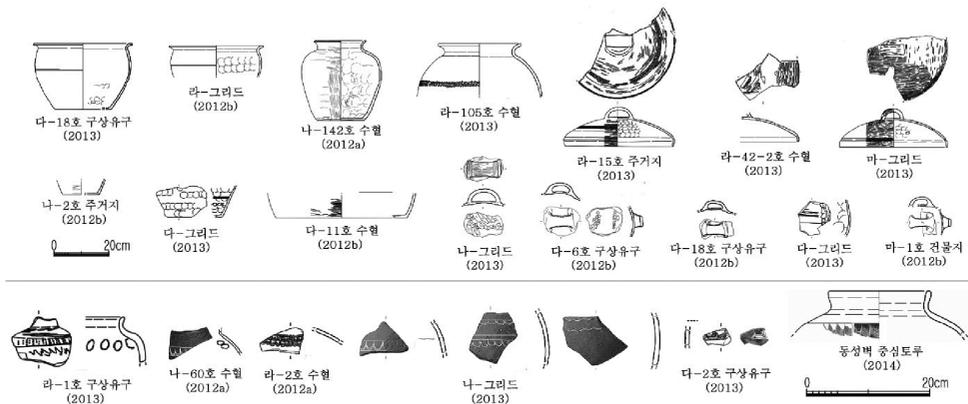
이외에도 라-15호 주거지·라-42-2호 수혈·마-그리드에서 대상파수부 뚜껑이 확인되었고, 나-60호 수혈 및 그리드·다-2호 구상유구에서는 파상문·중호문 등이 시문된 니질태토의 토기편들이 확인되었다.⁵⁾ 또한 나-2호 주거지·다-그리드⁶⁾·다-11호 수혈에서 저부편, 나-그리드·다-6호 및 18호 구상유구·다-그리드·마-1호 건물지에서 대상파수편이 출토되었다.



[사진 1] 풍납토성 동성벽 중심토루 출토 토기에 시문된 중호문 세부 모습(©필자 촬영)

그리고 성벽에서도 중호문이 시문된 고구려(계) 토기가 확인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한성백제박물관 2014). 해당 토기는 호의 구연부편으로 동성벽 중심토루 내부에서 확인되었으며,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문양의 시문 방법이다. 해당 토기에 시문된 중호문은 도구를 이용해 굽어내듯 시문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문 방법은 고구려 토기에서 주로 4세기대에 확인된다(이명현 2025a: 15). 특히 영릉진고성 출토 직구호(4기 후기, H 14호)와 국내성 출토(양식국숙사 지점-2000GLT2 4층) 직구호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문양을 시문한 것이 확인되고 있어 그 시기를 어렵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

4) 해당 토기들을 포함한 풍납토성 출토 고구려(계) 토기 도면에는 박자흔이 표시되어 있으나 실전한 결과 내외면의 정면이 비교적 꼼꼼하게 이루어져 박자흔은 관찰하지 못하였다.
 5) 나-그리드에서 출토된 동체부편(1351번)은 암문이 있는 고구려계 토기로 보고되었지만 토기의 태토나 색조, 정면흔을 살펴보았을 때 고구려(계) 토기라 확신할 수 없어 본문에서는 제외하였다.
 6) 다-그리드 출토 저부편(1443)은 보고서에 고구려계 토기로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태토, 소성도, 제작기법 등을 토대로 고구려(계) 토기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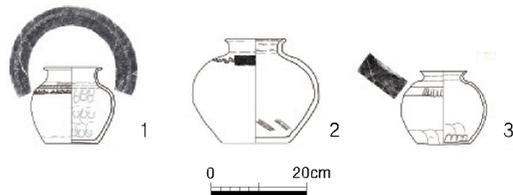
[도면 6] 풍납토성 출토 고구려(계) 토기

라 생각된다.⁷⁾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풍납토성에서는 고구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와 고구려 토기의 문양이나 대상파수 등의 요소를 차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구려계 토기가 모두 확인되고 있다. 다만 편으로 출토된 것들은 정확한 제작 주체를 추정하기에 한계가 있어 판단을 보류하고자 한다.

한편 석촌동 고분군에서도 고구려계 토기가 확인되었다. 해당 토기들은 한성백제 박물관(2019)에서 조사한 3호 목관묘와 1970~80년대에 발굴조사한 즙석봉토분과 즙석봉토분과 5호분 남쪽에서 수습되었다(서울대학교박물관 2014, 2015).

해당 토기들은 일반적인 고구려 토기의 형태는 아니며, 각각 견부에 파상문, 중호문, 점열문+횡침선+중호문이 시문되어 있으므로, 고구려 토기의 문양 요소를 차용하여 백제 도공이 제작한 고구려계 토기로 판단된다.



[도면 7] 석촌동 고분군 출토 고구려계 토기
(1. 3호 목관묘, 2. 즙석봉토분, 3. 5호분 남쪽 수습)

7) 해당 토기에 대해 '낙랑 출토 물결무늬 토기'를 근거로 중국 군현계 토기일 가능성이 거론(박순발 2013: 128~131)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역시 언급하였듯 '낙랑 출토 물결무늬 토기'는 현재 도면이나 사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토기가 군현계 토기일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도면이나 사진과 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 옛 중국 군현 지역에 중호문이 시문된 토기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현시점에서 풍납토성 동성벽 중심토루 출토 중호문 토기는 고구려(계) 토기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6) 연기 나성리·대평리 유적

연기 나성리 유적(현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에서는 백제 한성기에 해당되는 대규모 생활유적이 확인되었다(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5). 고구려계 토기는 수혈유구(KK-030)에서 타날문토기와 함께 출토되었으며, B형 구연이나 타날흔을 물손질로 지운 것 등의 제작기법적 특징이 관찰된다.

연기 대평리 유적에서는 B지점(현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704번지 일원)에 위치한 수혈주거지(KC-082) 동쪽 벽면에서 타날문토기와 함께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되었다(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2). 해당 토기의 경우 전체적으로 고구려 토기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형이지만 니질 태토 및 검은색 색조, 기면에서 타날흔이 보이지 않는 것 등이 고구려 토기의 제작기법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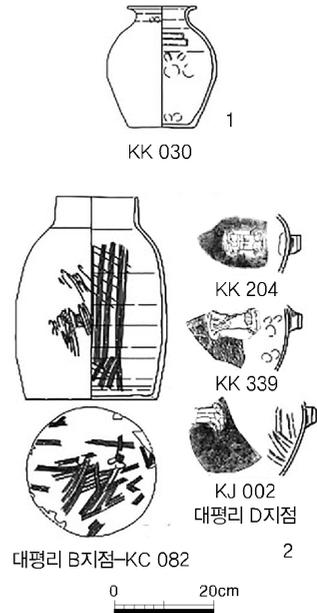
대평리 유적 D지점(현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92-1번지 일원)에서는 굴립주 건물지(KJ-002)와 수혈유구(KK-204·339)에서 대상과수가 부착된 동체부편 3점이 출토되었는데, 동체부에 타날흔이 그대로 남아 있다.

위 토기들은 형태·제작기법·출토 정황으로 볼 때 백제 한성기에 현지 도공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7) 화천 원천리·위라리 유적

화천 원천리 유적에서는 33호 주거지에서 경질무문토기·타날문토기·흑색마연토기와 함께 대상과수부 뚜껑 2점이 출토되었다(예맥문화재연구원 2013). 다만 고구려 뚜껑과 달리 과수의 폭이 얇으며 부착 방식에 차이가 있고, 비교적 크기도 작아 백제 공인이 제작한 고구려계 토기로 보인다(양시은 2011: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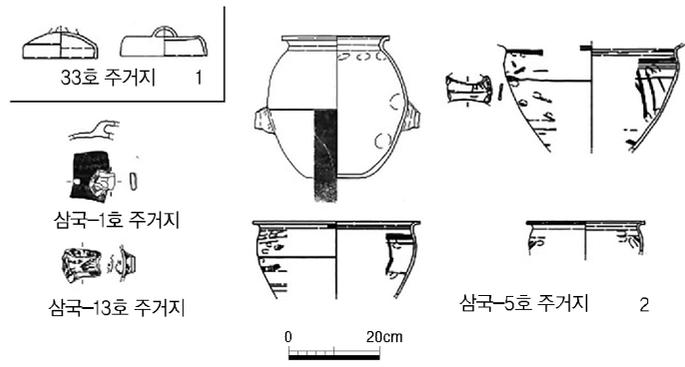
주거지의 연대와 관련해서 보고자는 노시설, 주축방향의 변화, 중복관계, 공반유물 등을 기준으로 삼아 I, II-1, II-2, III 단계로 구분하였다.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된 33호 주거지는 II-2단계에 해당되며, 기존 한성양식 백제 토기의 편년안과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와 고고지자기연대측정치 등의 절대연대 자료를 고려했을 때 4세



[도면 8] 연기 나성리·대평리 유적 출토 고구려계 토기 (1. 연기 나성리, 2. 연기 대평리)

기 후엽에서 5세기 전엽으로 파악하였다.

33호 주거지(묘자형)와 같은 중도 유형 주거지의 경우 연구자간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시간에 따라 평면 형태가 방형·오각형 → 오각형·육각형 → 육각형 → 원



[도면 9] 화천 원천리·위라리 123-1번지 유적 출토 고구려(계) 토기
(1. 화천 원천리 유적, 2. 화천 위라리 유적)

형·방형 순으로 변화하고, 부뚜막은 노지 → ‘ㄱ’자형 쪽구들+노지 → ‘一’자형 부뚜막+노지 → ‘一’자형 부뚜막 순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주거지의 면적이 점차 장단비 1:1에 가까워지고, 주혈의 간격이 벽을 따라 촘촘하게 배치되며, ‘一’자형 구들의 경우 후벽 중앙에서 우후벽 쪽으로 변화하는 경향성이 확인되고 있다(송만영 1999, 2024 ; 김준규 2013 ; 한지선 2013 ; 이성주 2015; 박경신 2019). 이를 고려한다면 33호 주거지의 평면 형태가 육각형에 장단비 1.15:1로 정육각형에 가까운 점, 우후벽에 ‘一’자형 부뚜막이 위치하는 점, 주혈이 촘촘하게 배치된 점 등 대부분의 요소가 중도 유형 주거지 중에서도 비교적 늦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보고자가 제시한 주거지의 연대를 수용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화천 위라리 123-1번지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1호 주거지에서 대상파수가 부착된 동체부편 1점, 5호 주거지에서 양이부호 1점·동이 3점,⁸⁾ 13호 주거지에서 대상파수 1점이 출토되었다(한국문화재단 2017).

1호 주거지 출토 동체부편에는 3줄의 파상문-횡침선-1줄의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고구려 토기에서 파상문이 시문된 경우는 있지만 해당 토기와 같은 구성으로 시문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고구려계 토기로 추정된다.

5호 주거지 출토 양이부호의 경우 고구려 토기에서는 드문 난형의 동체에 대상파수가 부착되어 있으며, 저부는 원저에 가까운 말각평저로 외면에 격자 타날흔이 확인되어 특징적이다. 양이부호의 동체 형태나 타날흔으로 보아 재지계 토기에 대상파수

8) 동이 3점 중 2점은 시무(267, 268)로 보고되었지만 저부가 결실되어 증기공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이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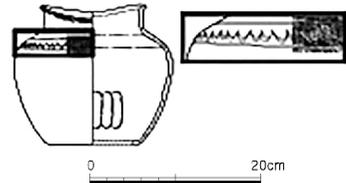
를 부착한 고구려계 토기로 판단된다. 5호 주거지 출토 동이의 경우 3점 모두 B형 구연에 타날흔은 확인되지 않으며, 대상파수가 부착된 개체도 있다. 이들 동이는 기형과 제작기법 모두 고구려 토기와 차이가 없으므로 고구려 토기로 잠정하고자 한다.

한편 보고자는 주거지의 연대에 대해 평면 형태 및 취사·난방시설과 유물 조합상을 기준으로 주거지를 3단계로 구분하였고, I기는 4세기 후반~5세기 초반, II기는 5세기 중반부터 6세기 초반, III기는 6세기 중반 이후로 파악하였다. 이에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된 1호 주거지는 III기, 5호 주거지는 II기, 13호 주거지는 I기로 편년된다.

그러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층서적으로 주거지의 선후관계를 정하기에는 주거지 간 중복관계가 거의 없고, 주거지별 출토 유물의 양상도 유의미한 시기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유적의 주거지 연대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출토 양상으로 보아 현지인들이 고구려계 토기를 사용한 것은 분명해 보이며, 2·4·5·7호 주거지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의 최외곽 연대가 5세기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 본다면 화천 위라리 유적 출토 고구려계 토기는 웅진기 이전에 고구려의 영향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8) 황성 읍하리 유적

황성 읍하리 유적(예맥문화재연구원 2014)에서는 삼국시대 4호 주거지에서 단경호가 출토되었다. 해당 토기는 일반적인 고구려 토기의 형태가 아니고 견부에 중호문이 시문된 것으로 보아 고구려 문양 요소를 차용하여 제작한 고구려계 토기로 판단된다.



[도면 10] 황성 읍하리 유적 출토 고구려계 토기 (4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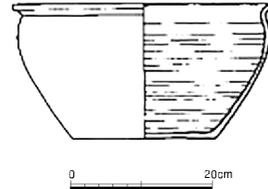
4호 주거지의 연대에 대해서 보고자는 주거지의 중복양상, 평면 형태, 노시설의 변화, 등자와 절축의 편년, 출토 토기의 양상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이 4세기를 상회할 수 없을 것이라 파악하였고,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의 최외곽 연대를 고려하여 그 하한은 5세기 전엽으로 잠정하였다. 4호 주거지의 평면 형태가 정육각형에 가깝고, ‘一’자형 부뚜막이 결합된 점, 출토 유물군(타날문 심발, 장란형 토기, 타날문 취사용기, 단경호 등)의 양상이 앞서 언급한 화천 원천리 유적의 33호 주거지와 유사한 양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고자의 편년안을 수용하고자 한다.

9) 진안 와정토성

진안 와정토성(군산대학교박물관·전북대학교박물관 2001)에서는 5호 주거지에서 동이 1점이 출토되었다. 와정토성은 백제가 지방통치를 위해 교통의 요지에 축조한 성으로(곽장근 2011: 87) 한성기에 초축되어 7세기 무렵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곽이다.

이혁희(2014)는 와정토성 내 출토된 토기와 유구들 간의 중복관계를 검토하여 성의 운영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I기는 4세기 말~5세기 초에서 5세기 중엽 이전, II기는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1/4분기, III기는 6세기 2/4~7세기 초로 편년하였다. 특히 성의 기초성토부에 해당하는 ‘불탄흙’이 나-10Pit 선행 구들유구를 덮고 있는 양상으로 보아 5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성이 축조된 것으로 이해하였고,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된 5호 주거지는 성벽 축조 이전인 I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와정토성 출토 동이는 타날흔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고구려 토기 제작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굽은 사립과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태토를 사용했다는 보고서의 서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고구려계 토기일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판단은 보류하고자 한다.



[도면 11] 진안 와정토성 출토 고구려(계) 토기(5호 주거지)

3.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현황

고구려는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치며 백제

[표 2] 백제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 출토 유적 현황

연번	유적명	출토 유구	유구 성격	수량	기종
1	부여 화지산	I기 문화층	미상	1	동이
2	부여 송국리	75-59지구	미상	1	장동호
3	부여 동나성	2Tr. 성벽 아래 선행유구층	미상	1	동이
4	서천 저산리	6-1지점 3호 옹관묘, 6-1지점 2호 소형 구덩이, 6-1지점 A호 봉토분 4호 석곽묘 배장 옹관, 6-3지점 4호 저장구덩이 상부	분묘	4	양이부호, 장동호, 옹 등
5	서천 봉선리	3-1구역 8호 석곽묘	분묘	1	양이부호
6	고창 중월리	석관묘	분묘	1	직구호

를 압박하였다. 양국의 이러한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 웅진기에는 고구려(계) 토기의 출토량이 많지는 않으며 관련 유적으로는 부여 화지산·송국리·동나성, 서천 저산리·봉선리, 고창 중월리 유적 등이 있다.

1) 부여 화지산·송국리 유적

부여 화지산 유적에서는 1기 문화층에서 동이 1점이 확인되었다(백제고도문화재단 2018). 형태나 타날흔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고구려 토기의 요소이지만 고구려 토기에서는 드문 회청색의 색조와 석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고구려계 토기로 판단하고자 한다.

해당 유적에서는 3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는데, 1기는 사비기 이전 문화층으로 파악되었고, 2기 문화층은 굴립주 건물지에 잔존하는 목주를 위글매칭한 결과 최외곽 연대가 515년~550년으로 확인되어 그 연대가 6세기 2/4~6세기 3/4분기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르면 1기 문화층 출토 동이는 늦어도 웅진기로 편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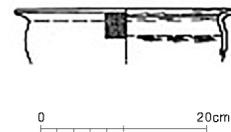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는 75-59지구에서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되었다(권오영 1991). 해당 토기는 외면에 타날흔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 장동호를 모방해서 제작한 고구려계 토기로 판단되며, 고구려 토기와 매우 흡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12] 부여 화지산·송국리 유적 출토 고구려계 토기
(1. 부여 화지산 유적 1기 문화층, 2. 부여 송국리 유적 75-59지구)

2) 부여 동나성

부여 동나성에서는 성벽 하부 문화층(2Tr. 성벽 아래 선행유구층)에서 동이 구연부편 1점이 확인되었다(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 해당 동이는 니질 태토로 제작된 점, 타날흔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 고구려 토기 제작기법과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며, 기형 역시 고구려 동이와 동일하여 고구려 토기로 판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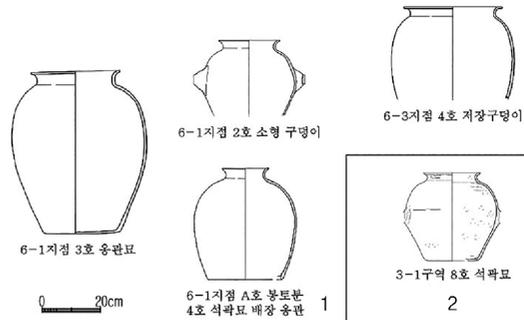


[도면 13] 부여 동나성 출토 고구려계 토기 (2Tr. 성벽 아래 선행유구층)

한편 해당 동이는 성벽보다 선행하는 유구에서 출토되어 성벽의 축조 상한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부여 나성은 일반적으로 백제가 사비로 천도(538)하기 이전에 이미 축조가 이루어지고 있던 것으로 추정(성현화 2021)되기 때문에 해당 동이 구연부편은 늦게 보아도 6세기 전엽이 하한일 것으로 보인다.

3) 서천 저산리·봉선리 유적

서천 저산리 유적에서는 6-1지점 3호 옹관묘에서 옹 1점, 6-1지점 2호 소형 구덩이에서 양이부호 1점, 6-1지점 A호 봉토분 4호 석곽묘 배장 옹관에서 장동호 1점, 6-3지점 4호 저장구덩이 상부에서 옹 1점이 확인되었다(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2). 해당 토기들은 고구려 토기와 형태 및 제작기법이 동일하여 유입된 고구려 토기로 추정된다.



[도면 14] 서천 저산리·봉선리 출토 고구려 토기
(1, 서천 저산리 유적, 2, 서천 봉선리 유적)

해당 토기들이 출토된 유구에 대해 보고자는 유적의 분기 중 제Ⅱ-③단계(5세기 4/4분기)에 6-1지점 3호 옹관묘, 6-1지점 A호 봉토분 4호 석곽묘 배장 옹관이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2호 소형 구덩이와 6-3지점 4호 저장구덩이는 대전 월평동 유적과 부여 진변리 유적의 저장 구덩이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6세기 중엽~7세기 중엽으로 판단하였다.

3호 옹관묘 출토 옹과 4호 석곽묘 배장 옹관 출토 장동호의 경우 5세기대 남한지역 고구려 토기 제작기법⁹⁾이 사용되었고 전체적인 기형이 고구려 토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보고자의 편년 안을 수용하여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호 소형 구덩이 출토 양이부호와 6-3지점 4호 저장구덩이 출토 옹의 경우 앞서 언급한 옹·장동호와 제작기법이 동일하고, 기형 또한 5세기대 고구려 토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고자의 견해와는 달리 옹진기로 편년할 수 있다.

서천 봉선리 유적에서는 3-1구역 8호 석곽묘에서 양이부호 1점이 확인되었다(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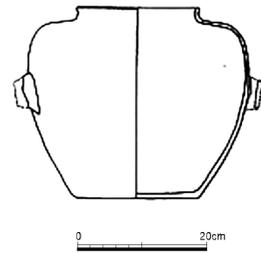
9) 5세기대 남한지역 고구려 토기는 앞서 언급하였던 A·B형의 구연부 형태를 비롯하여 경부의 형성 정도가 미약하고, 점열문·파상문·중호문 등의 문양이 시문되며, 타날흔이 확인되는 등의 제작기법적 특징이 있다.

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5). 해당 토기는 기형과 A형의 구연, 동체 표면에 타날흔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제작기법이 5세기대 고구려 토기와 동일하여 유입된 고구려 토기로 판단된다.

양이부호가 출토된 석곽묘에 대해 보고자는 봉선리 유적의 주요 묘제인 토광묘와 한동안 공존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석곽묘들의 연대를 5세기 이른 시기에서 6세기 초반으로 추정하였다. 고구려 양이부호의 경우 점차 최대정비가 커지고 편구화 되는데(이형호 2015; 이성욱 2020), 봉선리 유적 출토 양이부호는 6세기대 고구려 양이부호와 같이 완전한 편구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인근 저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들과 동시기로 추정된다.

4) 고창 중월리 유적

고창 중월리 유적에서는 석관묘에서 옹관으로 사용된 양이부호¹⁰⁾ 1점이 확인되었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4). 해당 토기는 일반적인 고구려 양이부호에 비해 건부가 발달해 있고, 구연의 외반도가 낮은 특징이 관찰된다. 이러한 특징은 오히려 직구호에 가까운 모습으로, 고구려 토기를 모방해 제작한 고구려계 토기로 추정된다.



[도면 15] 고창 중월리 출토 고구려계 토기

한편 석곽묘 주변 유구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장관형토기나 직구과수부소호, 경부에 거치문이 시문된 옹관 등이 대부분이라 양이부호의 시기는 비교적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직구과수부소호의 과수형태가 한성~웅진기에 주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부호는 늦어도 웅진기에는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이명현 2021: 31).

Ⅲ. 한성 ~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특징

이상에서 백제 한성~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성기

10) 필자의 기존 논문(이명현 2021, 2022)에는 해당 토기를 직구호로 분류하였지만 해당 토기의 구연이 약하게 외반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이부호로 재분류하고자 한다.

고구려(계) 토기의 경우 왕성이었던 풍납토성에서 출토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 고구려와의 접경지역인 육계토성·연천 강내리 유적에서 10점 가량의 고구려(계) 토기가 각각 출토되었다. 이외의 유적에서는 소수(6점 이하)의 토기만 출토되었다. 또한 북으로는 연천 강내리에서 남으로는 진안 와정토성까지 매우 넓은 범위에서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경우 서천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되었고, 이외에는 부여와 고창에서 소량의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되었다.

본 장에서는 현황이 파악된 한성~웅진기 고구려(계) 토기를 검토하여 각 시기별 고구려(계) 토기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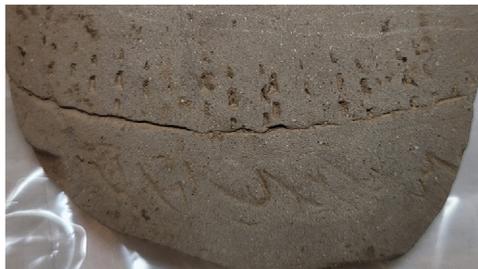
백제 한성기에 확인되는 고구려(계) 토기는 대체로 주거지나 수혈 등과 같은 생활 유구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고구려(계) 토기는 현지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토기와 함께 실생활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분에서 출토된 것은 연천 강내리 유적의 8호 석실분 출토 구형호가 유일하며, 이 구형호의 경우 고구려 석실분에서 출토되었지만 제작지와 제작자가 모두 고구려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계 토기로 판단하였다.

제작기법의 경우 고구려 토기와 동일한 경우도 있었지만 일부 고구려계 토기는 고구려 토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형을 가지고 있거나 기존 재지계 토기에 중호문·파상문·점열문·암문 등의 고구려 토기의 문양 요소를 차용한 사례도 확인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구려 토기와 비교하여 시문기법의 수준에서 차이가 감지되며



고구려 토기 문양 세부(©강원고고문화재연구원)



고구려계 토기 문양 세부(©필자 촬영)

[사진 2]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계 토기 문양 비교

(사진 2), 화천 위라리-1호 주거지와 풍납토성-나-그리드 출토 토기편처럼 고구려 토기에서 흔하지 않은 구성으로 문양이 시문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한편으로는 용인 마북동 442번지·풍납토성·화천 원천리 유적 출토품처럼 뚜껑에 대상과수를 부착시켜 사용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화천 위라리-5호 주거지 출토 양이부호처럼 재지계 토기에 대상과수를 부착시켜 사용하기도 한다.

태토는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계 토기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동일한 양상으로 확인되며, 특히 다-11호 수혈 출토 저부편과 나-그리드 동체부편의 경우 고구려 토기 태토에서 확인되는 붉은색의 산화철(Fe_2O_3) 성분(최종택 1995)이 관찰되기도 하여 고구려 토기와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사진 3).

일부 토기에는 타날흔이 확인되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구려 토기에서 확인되는 타날흔은 고구려가 남진 시 토기 제작에 현지 도공을 참여시킨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 유적들이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구려 도공의 감독하에 제작된 토기가 아니라 고구려의 남진에 영향을 받아 현지 도공이 고구려 토기 요소를 차용하여 토기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11호 수혈 출토 저부편(©필자 촬영)

나-그리드 출토 동체부편(©필자 촬영)

[사진 3] 풍납토성 출토 고구려(계) 토기에서 확인되는 산화철(Fe_2O_3) 성분

2.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특징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는 한성기와 비교하여 수량이 많지 않아 간략하게만 살펴 보자면 우선 부여 출토품과 그 외 지역 출토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여 출토품의 경우 대체로 화지산 유적·동나성과 같은 백제 사비기의 주요 시설 하부에서 확인되고, 송국리 유적 출토품과 같이 생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출토 정황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부여 이외 지역 출토품의 경우 대체로 웅관으로 사용되어 용도에 차이가 있다.

제작기법의 경우 부여 출토품의 기형은 고구려 토기와 유사하지만 타날흔이 확인되거나 태토가 니질이 아닌 사례가 있어 현지 도공이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부여 이외 지역 출토품은 고구려 토기와 기형과 제작기법이 동일하여 교류에 의해 유입된 고구려 토기로 추정된다.



석촌동 고분군 출토 고구려 토기(©서울대학교박물관) 서천 저산리 출토 고구려 토기(©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사진 4] 고구려 토기와 백제유적 출토 고구려 토기 비교

한편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는 대체로 고구려 토기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후에 등장하는 사비기 고구려계 토기(이하 고구려계 사비양식 백제 토기)와는 차이가 확인된다. 물론 시기 차이도 있겠지만 고구려계 사비양식 백제 토기의 경우 주로 생활에 사용되었고(이명현 2022: 47), 제작자가 백제 도공이기 때문에 표면에 타날흔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형 및 색조도 고구려 토기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경우 문양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고구려계 사비양식 백제 토기에서는 다양한 암문이 시문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¹¹⁾ 이러한 차이점은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와 고구려계 사비양식 백제 토기의 성격이 달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사진 5] 고구려계 사비양식 백제 토기에서 확인되는 타날흔과 암문(©필자 촬영)

11)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경우 출토 수량이 적어 아직까지 문양이 시문된 토기가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발굴성과를 기대해본다.

Ⅳ. 한성~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등장 배경 검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성기에는 고구려(계) 토기가 왕성인 풍납토성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었고, 출토 비율에 차이는 있지만 경기도 북부-강원도-전라북도까지 넓은 범위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주거지 혹은 주변 수혈에서 백제(혹은 재지계) 토기들과 함께 출토되고 있으며, 이 토기들 중에는 고구려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과 백제 토기에 중호문·과상문과 같은 고구려 토기 문양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사례가 확인된다. 후자의 사례를 통해 백제 한성기에 고구려 토기의 영향이 반영되어 토기가 제작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웅진기에도 확인되지만 토기의 출토 수량이 훨씬 적고, 고구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는 부여 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 출토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여 지역의 경우 화지산 유적·송국리 유적·동나성에서 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가 출토되었고, 이외에는 서천과 고창에서 옹관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백제 도공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작된 고구려계 사비양식 백제 토기와는 용도·기형·색조·문양 면에서 차이가 있어 그 성격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위와 같이 파악한 한성~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현황 및 특징을 기반으로 한성~웅진기에 고구려(계) 토기가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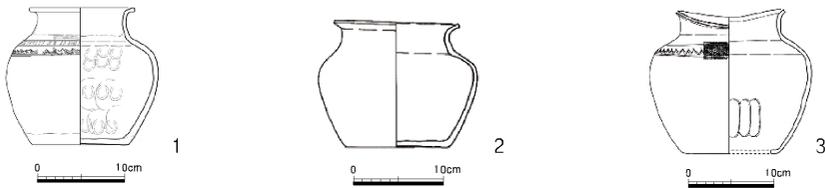
1.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의 등장 배경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의 등장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시기와 비율 그리고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가장 이른 시기(4세기 중후엽)로 추정되는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는 과주 육계토성 출토품이다. 육계토성 출토품은 제작 기법 및 형태 등을 통해 고구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는 출토 수량이나 범위 등으로 볼 때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아니라 4세기 무렵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진 소규모 교류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가 본격적으로 등장 및 확산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석촌동 고분군, 횡성 읍하리 출토 토기가 주목된다.

현재 석촌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의 중심연대는 공반된 중국 자기가 4세기 중

후반에서 5세기 초엽으로 편년되어 4세기 후엽경으로 추정되고 있다(한성백제박물관 2019: 324). 특정 토기군의 중심연대를 개별 기종 편년에 적용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본문에서 언급한 석촌동 고분군 출토 고구려계 토기(2호분 남쪽, 증석 봉토분, 3호 목관묘) 역시 이와 비슷한 연대로 추정된다. 이는 각 유적 출토 단경호의 형태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석촌동 고분군 3호 목관묘 출토 단경호의 경우 화천 원천리 유적(33호 주거지), 황성 읍하리 유적(4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단경호를 비교해 보면 그 형태적 유사성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도면 16). 앞서 화천 원천리 유적에서 고구려계 토기(대상과 수부 뚜껑)가 출토된 주거지가 33호 주거지였고, 해당 주거지의 연대는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황성 읍하리 유적의 4호 주거지 역시 4세기에서 5세기 전엽으로 편년되고 있다.



[도면 16] 각 유적별 출토 단경호의 형태 비교(이명헌 2025: 140, 그림 24)

(1. 석촌동 고분군, 2. 화천 원천리 유적, 3. 황성 읍하리 유적)

결과적으로 세 유적에서 출토된 단경호는 비슷한 시간대에 제작되어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시기는 이르면 4세기 후엽에서 늦으면 5세기 전엽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정확한 기종은 알 수 없지만 석촌동 고분군 1호분 주변에서 출토된 저부편과 동일한 기종으로 추정되는 토기가 은대리성 북쪽 외벽 16구간에서 수습되어 주목된다. 은대리성 출토 고구려 토기의 경우 기존에는 5세기 중후반으로 편년(양시은 2014)되었지만 최근 필자는 은대리성 출토 양이부호와 5세기 중후반으로 편년되는 다른 고구려 유적 출토 양이부호의 형태적 상이성에 의문점을 느껴 4세기 말~5세기 초라는 새로운 편년 안을 제시한 바 있다(이명헌 2024). 비교자료가 빈약하고, 해당 저부편이 고구려(계)토기인지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논리의 비약이 될 수 있겠지만 은대리성과 석촌동 고분군 출토 토기의 유사성 역시 4세기 후엽~5세기 전엽에 고구려계 토기의 본격적인 등장을 암시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도면 17] 은대리성·석촌동 고분군 출토 저부편 비교
(1. 은대리성 북쪽 외벽 16구간, 2. 석촌동 고분군-1호분 주변)

이처럼 석촌동 고분군 출토 고구려계 토기가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엽으로 비정된다면 접경지역 교류의 일환으로 유입된 과주 육계토성 출토 고구려 토기를 제외하고,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연대를 가지거나 혹은 그 이후로 편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고구려(계) 토기의 경우 대체로 5세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¹²⁾ 그 이남에 위치한 유적에서 출토된 고구려(계) 토기 역시 동일한 양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을 고려해 본다면 그 시기상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는 고구려의 세력 확장과 관련되어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엽은 본격적으로 고구려의 남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삼국사기』와 「광개토왕릉비」에 따르면 광개토왕은 즉위 후 4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백제의 석현성 등 10성을 함락시켰고, 같은 해 10월에는 백제 관미성을 함락시켰다.¹³⁾ 또한 396년에는 백제의 58성 700촌을 공취하고 한성을 포위하여 백제 아신왕에게 영원한 노객이 되겠다는 항복을 받아낸다.¹⁴⁾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통해 당시 광개토왕의 세력 확장을 백제가 완벽히 막지 못

12) 나-60호 수혈은 삼국기·대부환·대부집시·진달린 집시·이배·기대·합·세 등과 같은 다양한 기종이 일시에 폐기된 정황이 포착되어 의례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국립문화재연구소 2012a: 594), 공반된 상협하광형기대·세·이배 등은 5세기 전중반에 출현하는 기종으로 추정(한지선 2013)되어 나-60호 수혈 출토 고구려계 토기는 5세기로 편년될 수 있다. 또한 대상과수부 뚜껑이 출토된 라-15호 주거지의 경우 보고지는 한성 3기(4세기 말~5세기 전반)로 파악하였고, 중호문이 시문된 동체부편이 출토된 다-2호 구상유구가 층위상 선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해당 동체부편은 한성 2기(4세기 전반~후반)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과상문이 시문된 용이 출토된 라-105호 수혈의 경우 한성 최말기 유구로 편년되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13)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광개토왕 2년(392).

14) 「광개토왕릉비」영락 6년(396), ‘……侵註 穴註 便註 圍註 城而註 殘主註 困逼註 獻註 男女生註 口註 一千人 細布千匹註 跪註 王自誓 從今以後永爲奴客太註 王恩教註 先 迷之愆註 錄其後順之誠於是得註 五十八城村七百將註 殘主註 弟註 并大臣十人旋師還都……’.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당시 백제가 고구려의 영향권¹⁵⁾에 속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백제 내에서 고구려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고고자료 중 하나가 백제 한성기에 확인되는 고구려(계) 토기로 추정된다.

물론 광개토왕 남진의 흔적이 본문에서 언급한 유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광개토왕의 남진과 관련된 유적으로 파주 육계토성·연천 은대리성·원주 건동리 유적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명현 2024). 이러한 유적들과 함께 본문에서 소개한 화천 원천리·위라리 123-1번지·횡성 읍하리 유적 등도 광개토왕대에 이루어진 경자대 원정(400)의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유적들이 광개토왕의 남진과 관련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정리해보자면 광개토왕의 한성 공격은 백제 사회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며, 이후 백제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이 증가했음은 분명하다. 특히 4세기 후엽~5세기 전엽경 증가하기 시작하는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는 이러한 당시 정황을 반영하는 고고자료로 이해된다.

2.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등장 배경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는 한성기와는 그 양상이 사뭇 다르다. 475년에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살해하자,¹⁶⁾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였고, 고구려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전까지 남진하며 백제를 압박한다. 따라서 당시 백제의 고구려에 대한 적개심은 절정에 도달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양국의 관계로 인해 웅진기에는 소수의 고구려(계) 토기들만 확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경우 그 수량이 적지만 크게 부여 지역 출토품과 그 외

15) 본문에서 언급하는 '영향권'이란 아래와 같은 장창은(2010)의 개념을 따랐다.

내용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개념	영역(영토)[직접지배]		세력권[간접지배]	영향권[지배×]
지배 형태	면지배 (지방관을 통한 행정지배)	선·점지배 (교통로를 통한 군사적 거점지배)	'타국'에 군사단 주둔 또는 공납 수취를 통한 지배	1~2단계로 인해 발생 · 파생된 문화적 범위
특징	독점적·배타적 공간. 타국세력 접근 방어		타국의 영역에서 정치·경제 · 군사적 의무관계 형성	정치·경제·군사적인 의무관계 형성×

16)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63년(475).

지역 출토품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부여 지역 출토품을 보면 실생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체로 사비도성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제가 사비로 천도할 당시 이미 웅진기에 나성을 비롯한 도시의 제반 시설을 조성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박순발(2005)은 웅진기에 저습지였던 사비 지역을 개발하고자 고구려 치하에 있었던 舊백제인들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근거 중 하나로 동나성 하부 문화층에서 출토된 고구려계 토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필자 역시 공감하는 바이며, 화지산 1기 문화층에서 출토된 동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부여 궁남지(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7) 출토(구상유구 4) 동이 등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당시 고구려와 백제는 각축을 지속하며 서로 포로를 잡아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¹⁷⁾ 고대 사회에서 노동력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백제가 사비도성을 조성하기 위해 포로들을 활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물론 포로들과 고구려계 토기를 직결시키기에는 그 연결고리가 미약하지만 소수의 고구려인 혹은 고구려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소수 사비도성 내에서 활동한 결과가 부여에서 확인되는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일 것으로 잠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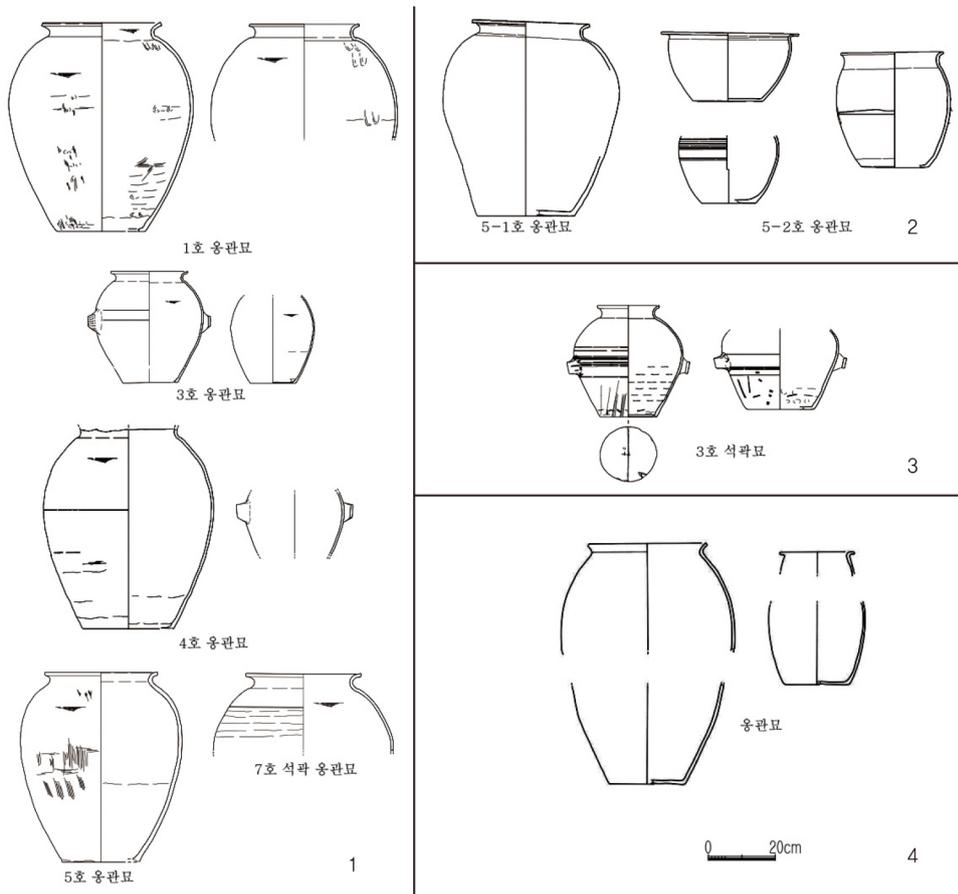
한편 부여 이외의 지역에서 출토된 토기의 경우 옹관으로 사용되고 있어 부여 지역 출토품과는 기능상에 차이가 확인된다. 고구려(계) 토기가 옹관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475년 이후 한강 이남 舊백제 지역에서 고구려 토기로 옹관묘를 조성하는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한강 이남 지역인 석촌동 고분군 · 인천 불로동 유적 · 오산 궐동 유적¹⁸⁾ · 안성 동기동 산52번지 유적 등에서는 고구려 토기를 이용하여 조성된 옹관묘가 확인되었다.

17)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4년(482) · 무령왕6년(506),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문자왕21년(512) 등의 기사를 보면 고구려 · 말갈이 백제를 공격하여 포로들을 사로 잡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백제는 고구려에게 대항하여 승리하였다는 기사만 확인되나, 이 과정에서 백제 역시 고구려인들을 포로로 확보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이명현 2022: 66).

18) 인천 불로동 유적 · 오산 궐동 유적에서 출토된 고구려 옹관의 경우 통일신라~고려 석곽묘로 보고된 것들이다. 그러나 최근 이들 토기가 고구려 토기라는 주장(김진영 2023)이 제기되었고,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석곽묘들이 외따로 분포하고 있고, 출토 토기들이 제작기법(바닥면에 돌대흔 등) 및 형태적으로 고구려 토기와 동일하여 필자 역시 이들 토기를 고구려 토기로 판단하였다. 다만 김진영(2023)은 인천 검단지구 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 2019) II-1지점 A구역 2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양이부호 역시 고구려 토기로 보았으나 위 두 유적과는 달리 석곽묘가 주변 통일신라 석곽묘군과 동일 선상에 조성되어 있어, 삼국통일 이후 고구려계 주민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문에서는 제외하였다.

옹관묘는 고구려의 무덤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구려인이 조성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백제 한성이 함락된 이후 백제의 토기 유통체계가 붕괴되자 입수가 용이한 고구려 토기를 이용해 舊백제인들이 조성한 것으로 이해된다(양시은 2011: 111, 2014: 72). 이러한 해석은 옹진기에 백제 지역에서 고구려(계) 토기로 조성된 옹관묘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당시 인접했던 고구려 지역에서 유입된 토기를 옹관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⁹⁾



[도면 18] 한강 이남 고구려 옹관

(1. 석촌동 고분군, 2. 오산 결동 유적, 3. 인천 불로동 유적, 4. 안성 도기동 산52번지 유적)

19)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영세한 소규모 교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이명헌 2022: 66).

V. 맺음말

이상으로 한성~웅진기 백제유적에서 확인되는 고구려(계) 토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성기에 확인되는 고구려(계) 토기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 전라북도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확인되었고, 한성기 백제의 왕성인 풍납토성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고구려(계) 토기가 확인되었다. 대부분 주거지와 수혈에서 재지계 토기와 함께 출토되어 현지인이 실생활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재지계 토기에 중호문·파상문·점열문·암문 등과 같은 고구려 토기 문양 요소를 차용하여 제작하는 양상이 확인되었고, 한편으로는 고구려 토기 태토에서 확인되는 산화철 성분이 확인되는 등 제작기법과 형태가 고구려 토기와 동일한 토기들도 출토되고 있어 교류에 의해 유입된 개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에서 유입된 토기를 제외하고, 대체로 광개토왕의 남진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는 대체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이후로 편년되는데 이 시기가 광개토왕의 남진기와 겹치며, 출토 지역도 광개토왕의 남진 경로와 일치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광개토왕의 한성 공격이 백제 내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쳤고, 그 여파로 한성기에 고구려(계) 토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확산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웅진기에는 양국의 적대적인 관계가 심화되어 고구려(계) 토기의 수가 매우 적게 확인되며, 부여지역과 그 외 지역인 서천, 고창 등에서 출토되었다. 부여에서 출토된 토기는 대체로 고구려계 토기로 추정되는 반면 그 외 지역, 특히 서천지역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제작기법과 형태가 고구려 토기와 동일하여 고구려 도공이 제작한 토기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는 부여 출토 고구려(계) 토기의 경우 각 유적 문화층의 하층에서 출토되는 점과 실생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당시 사비도성 개발을 위해 투입된 고구려 포로와 관련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반면 부여 이외의 지역에서 출토된 토기는 옹관으로 사용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는데, 동시기 한강 이남의 옛백제 지역에서 조성된 고구려 옹관의 사례를 볼 때 당시 인접했던 고구려 지역에서 유입된 토기를 옹관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투고일 2025. 12. 26 | 심사완료일 2026. 1. 26 | 게재확정일 2026. 2. 2

참고문헌

- 「광개토왕릉비」.
『삼국사기』.
- 경기도박물관·한양대학교박물관, 1999, 『과주 주월리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고려문화재연구원, 2010, 『가평 향사리 유적』.
_____, 2012, 『연천 강내리 유적』.
곽장근, 2011,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63, 한국고대사학회.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a, 『풍납토성 XⅢ』.
_____, 2012b, 『풍납토성 XⅣ』.
_____, 2013, 『풍납토성 XⅤ』.
국립문화재연구소·한성백제박물관, 2014, 『풍납토성 XⅦ-성벽의 축조공법 및 연대 규명을 위한 학제간 융합 연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7, 『宮南池Ⅲ-南便一帶 發掘調査報告書』.
군산대학교박물관·전북대학교박물관, 2001, 『와정유적』.
권오영, 1991, 『松菊里Ⅳ』, 국립중앙박물관.
김준규, 2013, 「중도식무문토기 상대편년 연구-경기 북부·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영, 2023, 「한강 수계 이남지역 고구려 수혈식묘제의 다양성과 특징」, 『승실사학』51, 승실사학회.
대동문화재연구원, 2019, 『仁川 黔丹地區 遺蹟Ⅱ』.
박경신, 2019, 「원삼국시대 중도유형 취락의 편년과 전개」, 승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순발, 2005, 「高句麗와 百濟-泗水樣式 百濟土器의 形成 背景을 中心으로-」, 『고구려와 동아시아-문물교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박물관·고려사학회.
_____, 2013, 「백제, 언제 세웠나-고고학적 측면」, 『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 1-백제, 누가 언제 세웠나』, 한성백제박물관.
백제고도문화재단, 2018, 『부여 화지산 유적-2015~2016년도 2·3차 발굴조사』.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2, 『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서천 저산리, 수성리 유적』.
서울대학교박물관, 2014, 『석촌동고분군Ⅱ』.
_____, 2015, 『석촌동고분군Ⅲ』.
성현화, 2021, 「백제 사비성벽의 축조양상과 의의」,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박물관, 2016, 『안성 도기동 산52번지 창고신축부지 내 유적』.
송만영, 1999, 「中部地方 原三國 文化의 編年的 基礎」, 『한국고고학보』41, 한국고고학회.
_____, 2024, 「중도식 주거지의 취사 시설과 취사 용기의 변화」, 『승실사학』53, 승실사학회.
양시은, 2011, 「남한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시공간적 정체성」, 『고고학』10-2호, 중부고고학회.
_____, 2014,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46, 호남고고학회.
_____, 2023, 「고구려의 한강 유역 진출과 경영」, 『제23회 쟁점백제사 학술회의-백제의 한강 유역 회복과 고구려·신라』, 한성백제박물관.
예맥문화재연구원, 2013, 『화천 원천리 유적』.
_____, 2014, 『횡성 읍하리 유적』.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4, 『高敞 中月里 文化遺蹟調査報告書』.

- 이명현, 2021. 「고구려계 사비양식 백제토기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22. 「고구려계 사비양식 백제토기의 형성 과정과 그 배경」, 『백제학보』39, 백제학회.
- _____, 2024. 「고구려 토기를 통해 본 연천 은대리성의 활용 연대」, 『상고사학보』123,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25a. 「토기를 통해 본 고구려의 신빈 영릉진고성 운영 기간」, 『한국고고학보』134, 한국고고학회.
- _____, 2025b. 「고구려계 토기의 전개 양상 및 특징」, 『백제 사비기 토기 문화와 고구려-백제학연구총서 쟁점 백제사 26』, 한성백제박물관.
- 이성욱, 2020. 「伍女山城의 年代와 性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주, 2015. 「風納土城 土器遺物群의 年代와 百濟土器 漢城樣式의 成立」, 『호남고고학보』49, 호남고고학회.
- 이희희, 2014. 「鎭安 臥亭土城의 構造와 性格 再檢討」, 『호서고고학』31, 호서고고학회.
- 이형호, 2015.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창은, 2010. 「『三國史記』 地理志 ‘高句麗故地’의 이해방향」, 『한국학논총』33.
- 중앙문화재연구원, 2013. 『烏山 關洞遺蹟』.
- 최종택, 1995. 「漢江流域 高句麗土器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1998. 「高句麗土器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20.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 유물」, 『고구려와 한강』, 한성백제박물관.
-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 『백제사비나성 II』.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5. 『서천 봉선리 유적』.
-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2. 『연기 대평리유적 B지점』.
- _____, 2015. 『연기 나성리 유적』.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 『용인 마북동 442번지 유적』.
- 한국문화재단, 2017. 『화천 위라리 123-1번지 외 1필지 유적』.
- 한성백제박물관, 2019. 『서울 석촌동 고분군 I』.
- _____, 2025. 『백제 사비기 토기 문화와 고구려』, 제26회 쟁점백제사 학술회의자료집.
- 한지선, 2013. 「漢城百濟期 聚落과 土器遺物群의 變遷樣相 -서울·경기권 편년수립을 위하여-」, 『중앙고고연구』12, 중앙문화재연구원.
- 호남문화재연구원, 2020. 『仁川 黔丹 麻田洞·元堂洞·不老洞유적 -不老洞 I』.

An Examination of the Current Status and Emergence Background of Koguryo(style) Pottery Excavated from Baekje Sites of the Hanseong–Ungjin Period

Lee, Myeong-Heon(Ph.D. Student,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of Koguryo(style) pottery identified within Baekje territory from the Hanseong to the Ungjin periods. During the Hanseong period, Koguryo(style) Pottery was found across a relatively wide area, including northern Gyeonggi, Gangwon, and Jeollabuk-do, with the largest quantity recovered from Pungnap-toseong (風納土城), the royal capital of Hanseong-period Baekje. Most examples are presumed to have been used locally in daily life. In some cases, Baekje pottery was produced by adopting decorative elements from Koguryo Pottery, while other vessels exhibit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forms identical to Koguryo Pottery—such as clay bodies containing iron oxide—suggesting that certain pieces were introduced through interregional contact. The appearance of Koguryo(style) Pottery during the Hanseong period is interpreted as being related to King Gwanggaeto's southern expansion.

In the Ungjin period, hostile relations between the two states intensified, resulting in a very limited presence of Koguryo(style) Pottery. These finds occur mainly in the Buyeo area, as well as in regions such as Seocheon and Gochang. Pottery from Buyeo is generally considered to represent Koguryo(style) Pottery, whereas specimens from other regions—particularly Seocheon—display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forms identical to Koguryo Pottery, suggesting that actual Koguryo Pottery was introduced. The background for the appearance of Koguryo(style) Pottery in the Ungjin period can

be divided into Buyeo and non-Buyeo contexts. In Buyeo, it is likely associated with Koguryo captives mobiliz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Sabi capital. In contrast, pottery recovered outside Buyeo is interpreted—based on contemporaneous examples of Koguryo jar-coffins constructed in former Baekje territories south of the Hangang—as Koguryo Pottery introduced from adjacent Koguryo regions and subsequently used as jar coffins.

Key words : Koguryo, Baekje, Koguryo Pottery, Koguryo-style Pottery